제 5과 좌를 지은 아담과 하와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5장 ... 4절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좀 피곤하시죠. 오늘은 말씀이 늦게 끝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가
코로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특별 교제 제대로 못하셨을거 같아요. 다음주 공과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 계속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다보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 아무 관계없이 지내는 때가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분은 가로성경 보시다가 세로 성경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바꾸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성경이 너무 익숙해져도 우리 마음에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와
관계있게 교훈을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건과 인물이 있는데, 많은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잭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축복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의 살아갈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 그 모습 그 대로 읽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교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오늘 공부할건데요- 거기서 보시면 마귀는 아담을
넘어뜨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상기시키게 하고 또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과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중용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배우는 가운데 현재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는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잭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뭇을
발견해야 될거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길 ...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 ...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딩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길 중에 ／'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길을 택하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므로 많은
형별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 곡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큐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18절은 같이 읽을까요.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섬기면
18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회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여I~ 야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와 생명과의 선택의 길이 놓여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도 선택의 길이 항상 놓여있는거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것이냐?
두 번째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마귀의 뭇대로 살것이냐?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남이 6일간 천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중에 ‘하나님께서 둘째날
궁창을 만드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들은 야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사탄 때문에 그러신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명령하신게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I~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다을 동산으로 ... 에덴동산으로 이끌으셔서 에덴동산을 지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동산에는 많은 각종 나무실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지커라고 하는 걸까요? 지키는 것은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둘째날 궁창을 만드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지키게 하셨던 것은
에덴동산에 아담외에 사단이 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 사단에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로봇은 사랑의 짝이 될 수 없죠.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은 사랑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의 사랑의 짝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 이처럼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사랑의 짝 하와를
만드셨던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죠.

창세기 2장 16절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됐습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는 먹지말라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아니 하나님. 따먹을줄 알면서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람에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잖아요. 저 선악과는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시커지 않았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순전히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야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꿀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신게 아니라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죠. 그런데 왜 방치가 되었을까요- 막을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엄마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어떤 부모님은 가서
말리죠. 못하게 ...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랴.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가로막지는 않으셨어요. 그랬죠. 예.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취소가 없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번 명령하시고, 명령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공부 안하는 자녀를 보면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만 결국
아이가 공부를 안하면
때려 죽입니까? 놔두죠.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줘었어요. 좋은 옷을 사주면 분명 그 옷을 입고
밖에 옷을 망치게
생겼어요. 한번 말하고 애가 그래도 나가면 옷을 벗고 나가게 해요?
그냥 놨둬요?
놔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갈아입을 옷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독약을 먹겠다고 때를 씁니다.
만약에 그 독약을 먹어서 독약을 치유하는 좋은 약이 있다면
부모님도 놔둘꺼에요.
독약먹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살리는 약을 먹으면 되니까 ...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지 거역할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아담을 살랄 수 있는 방법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리고 그들을
용성하신 사랑을 보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시험이었어요. 무슨 시험이냐면 ...
시험문제는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먹지말라는 시험이라는 거였죠. 먹는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사단은 먹는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를 계속 먹을수 있는 자격도 부여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또한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마귀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귀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계략은 우리가 다 알고있죠. 마귀가 마음의 불의를 품었는데 전사 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같이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불의를 야시고 이 따에 쫓아내신거에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느거죠.
먹는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게 아니라 흔미케해서 판단력을 흐려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기도록 유흑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뱀이 한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동산나무에 실과는 .. 아니다.

창세기 3장 1절요. 후반절
1 "~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말라는게
진짜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하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뱀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미케
합니다.

4절을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묘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뒤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날에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랴.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결코 죽지
않는다 말하고 하와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이 들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욕심을
불어 넣었죠. ‘또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원졌습니다. 서l상을 향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량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예~
성경에도 분명히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량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역했고 의심을 심어주게 되었고 또한 세상

욕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이 또한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와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량이 점점 점점 감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더 크게
자리잡게 되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또한 이세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졸지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빠진사람은 아담이 아니었죠. 하와였습니다.
하와먼저 사탄의 꾀임에 빠졌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넘어뜨리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뒤에는 같이 읽어 볼까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보면 야담이 하와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받았을때 어떤

반응을 취했는지 나오지
않았죠. 그냥 그도 먹은지라. 바로 먹었다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와같이 하와는 인정을 통해서 정을 통해서 아담을 쉽게 넘어뜨렸던거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하와의 말을 들은 아담 ... 그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넘어졌죠.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은
마귀가 아니었죠.
그의 아내 하와가 넘어뜨렸습니다 옆에 분틀 조심하셔야겠죠. 예~~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으선 분들 서로 동역자로 신앙을 세워주는
역할도 하지만 협게
무너뜨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마귀는 이처럼 우리 주위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속에 있는
교만 ...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우리는 쉽게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에 불순종을 통해서 그 결과 이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죠.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이세상의 죄가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을 받고 지옥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별로 주신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으리라 하면서
고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므로 이땅의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시펀 107펀 ... 시펀 107펀 10절입니다.
시펀 107펀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메임은”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뭇을
멸시함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므로 이땅의 흑암과 사망과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재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고와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 영혼이 죽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죄의 상은 사망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짐승 한 마리를 죽이시므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 창세기 3장 15절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범죄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지옥 형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 범죄에 대한 결과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아담이 범죄한후에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죄를 담당케 하시고 세상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이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대한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좀 받아야 될거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든 일 가운데 ..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시험과 같이 ...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치 않았죠.
결국 자기 눈이 보는대로 또한 세상을 따라서 자기 선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틀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었죠. 사십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매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뭇을 알리고 깨앓게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뭇은
저버리고 알지 못하고 원망만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십년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는지 시험하시고 확인묘자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않고 불평불만과 원망만하다가 결국 그 육신은 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어때요. 이세상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광야생활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지커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져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않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이스라엘 사람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없어집니다. 한눈을 팔면 그렇죠.
자 바람피우는 여자가 있죠.
평상시 평일에는 다른 남자와 지내다가 주말에만 자기 남편하고 지내요.
우리 아이틀이 특히 그럴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마귀하고 짝짝꿈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척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틀을 지도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삶부터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 구원확증 없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모두 다
구원이 아니라고 구원 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춘기가 되면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 구원을 의심하는 야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뭇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될탠데,
이 세상은 마귀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야이들이 눈에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또한 욕심대로 사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이 아이들이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틀을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삶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또한 그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저희들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또한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길들이
잇습니다. 간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 육신대로
세상으로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말씀대롤 저희 마음가운데 심걱주시고 주님의
말씀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주셔서 남은 때를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 야이들을 능히
하나님의 뭇대로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